

위로와 버팀목

최은서

공간

벚꽃이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졌다. 그냥 나무 아래서 서 있는 것만으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중에 나에게 뭐가 남을까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무엇이 남을지 생각을 해보면 그땐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만 들 것 같았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의 일상생활이 무너졌기에 하루살이처럼 버티는 게 다였다. 하지만 내가 지나치는 벚꽃 나무와 흔들리는 바람이 나에게 알려준 것 같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매일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살던 나에게 알려준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길은 열릴 것이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수록 실수만 더 늘어날 뿐이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고

항상 힘들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쉬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머리가 쉴 시간을 주면서 몸도 같이 쉬는 시간을 주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공원에 가족과 강아지들을 산책 시키면서 맡는 새벽의 공기와 선선한 바람이 나를 반겼다. 바람은 내 머리를 식혀주었고 새벽의 공기는 내 고민을 바람에 담아 날려 보낼 수 있게 도와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며 걸어 다니다가 보면 마음 한편에 있던 불안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새벽 공기와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고 쉬었다. 새벽의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은은하게 나는 풀 향기와 바람 향기가 나를 감쌀 때 모든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 압박과 대학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 괴롭혔다. 18살 정도가 되니까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다. 나도 친구들도 굉장히 바빠졌다. 그러다가 보니 친구들이랑 영화를 볼 수도 서점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서점에서 책 향기를 맡으면서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점에 갈 수 없었다.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쌓이고 풀 수 없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해외여행이나 여행으로 풀었다.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나만을 위한 치유를 할 수 있었기에 그냥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바람에 영감을 실어서 나에게 가져다줬다. 여행을 가면 내면의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지식보다 내면의 나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했다.

책을 읽거나 새벽에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을 많이 쓰

지 못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공원에 가서 걸어 다니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내 일상도 무너졌고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다.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반에서 간단히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나는 졸업식은 아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입학식을 못 해서 아쉬웠다. 고등학교를 가지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다. 나는 아쉬움을 바람에 올려 보냈다.

동물

새벽에 글을 쓰면서 노래를 듣는 건 해본 사람만 알고 있다.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새벽에 글을 쓰면서 노래를 들었고 머리가 과열되었을 때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꼈다. 자연은 언제나 나를 응원했고 위로했다.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바람이 내 열을 식혔고 비가 내 눈물을 가려줬다. 글이 안 써질 때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영감을 주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너무 힘들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도 힘든 일들은 꼭 겹쳐 와서 무너져 내렸다. 그럴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내 옆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마웠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건 아니었다. 내 힘듦과 고민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다 울 때까지 묵묵하게 곁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정말 고마웠다. 내가 다 울고 나면 나랑 놀자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 장난감을 물고 해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더 많았다.

사람

나는 가족보다 친구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친구들은 내 힘들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동감해줬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를 했고 힘들 때는 만나서 위로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고 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면서 고민 상담을 했다. 난 그 시간이 아주 좋았다. 어른들한테 말하면 공감을 못 했고 이해를 못 했다. 나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했고 대입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속이 후련했다. 친한 친구와 만나면 그냥 비슷한 일상인데도 즐거웠다. 친구들을 만나면 웃음이 많아졌고 재미있었다.

갑자기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나랑 놀자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면 나는 만나서 놀기도 했다. 가끔은 약속이 아닌 급한 만남도 이것만의 매력이 있었다. 사실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 놀러 가서 배달 음식 시키고 게임을 하는 것이 더 많았다. 5~6년 정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 보니 놀거리도 별로 없었다. 우리는 항상 코스가 똑같았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서점에 가고 길거리 구경하다가 집에 왔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성 팬용 상품을 사러 홍대에 가기도 했다. 이런 추억들이 내가 힘들 때마다 이뻐 즐거웠지! 하면서 위로를 했다.

친구들과 한 문제에 대해 헤어질 때까지 토론한 적도 있었다. 나는 위로를 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내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 공간, 반려동물이 있었다. 그렇기에 내가 위로를 할 때는 항상 속상한 일은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런 말들뿐이었다.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읽을 수 있었다. 친구들의 일들을 내가 겪었던 것처럼 와 닿을 수 있었다. 가끔은 너무 공감 능력이 좋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정의한 위로는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힘들음을 공감해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가장 잘 하는 위로 방법은 공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한다.